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미래의 어느 순간에 현재를 돌아봄.**

인생을 돌아볼 만한 나이

힘없는 책갈피는 이 종이를 떨어뜨리리

젊은 날의 방향에 대한 글.

⇒ 오랜 세월 뒤에 현재의 기록을 볼 것을 예상.

그때 내 마음은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으니

여러 가지의 갈등, 방향

어리석게도 그토록 기록할 것이 많았구나 **영탄형 어미 반복 사용.**

구름 밑을 천천히 쏘다니는 개처럼

젊은 시절 방향하는 화자의 모습.

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거렸구나

열정은 가득했지만 행동을 하지 못했다.

나 가진 것 탄식밖에 없어

저녁 거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두고

자신의 뜻과 이상대로 살지 못함.

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세어보았으니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타인이 화자를 정체성을 지닌 존재로 인정하지 않음.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

자신의 삶이 타인에 대한 시기와 부러움 뿐이었다는 인식.

⇒ 자신에 대한 반성과 성찰

그리하여 나는 우선 여기에 짧은 글을 남겨둔다

현재의 기록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타인으로부터의 인정.

단 한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지 못한 데에 대한 자조.

⇒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여 글을 씀

갈 래 : 서정시, 자유시

성 격 : 자조적, 성찰적, 반성적

어 조 : 영탄적이고 애상적인 어조.

주 제 : 젊은 날의 자기 삶에 대한 반성

특 징 : 감탄형 어미 반복 사용, 미래의 상황 가정하여 시상 전개.

해 설

이 시는 청춘 시절에 대한 화자의 반성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화자는 자신의 청춘의 모습을 현실에 뿌리내리지 못한 '개'에 비유하고, 자신이 가진 것이라고는 탄식밖에 없다고 자조한다. 그러면서 화자의 삶은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한 창조적인 몸부림이 아니라, 순전히 타인이 가진 것에 대한 시기와 부러움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반성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 시를 썼을 당시의 시인도 젊었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모르고 다른 것만 미친 듯이 원하고 질투하는 것이 젊음임을. 이 시는 먼 훗날 읽혀질 생각으로 지금 쓰여진 시다.

